

海印寺에 소장된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外藏’ 연구(Ⅱ) – 高麗經板의 조성성격*

崔永好**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성주체와 그 성격
- III. 조성체계와 그 성격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해인사에 소장된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외장’에 포함된 경판들 가운데 고려시대에 판각된 총 71종 경판들의 조성 주체·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이들 경판에 담겨진 역사·문화적 성격 및 가치를 진단하였다. 그 개별 경판들 가운데 『宗鏡錄』 등 4종은 大藏都監이나 分司都監에서 조성되었으므로 都監板이라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장의 개별 경판들 가운데 조성주체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경우, 경판의 판각과정에서 대장도감·분사도감의 각수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경우,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운영체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도 도감판 내지 準都監板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시기를 고종 23년(1236) 大藏都監과 分司都監이 설치되어 강화경판의 대장이 산출된 이듬해부터 대장의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같은 왕 38년까지로 한정하면서도 도감과 거의 관련된 경판은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030)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해인사팔만대장경연구원 전문연구위원 (daejk58@hanmail.net)

먼저, 3종류의 분류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판은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등 6종이다. 다음으로, 2종의 분류 기준이 관련된 사례는 『金剛三昧經論』 등 6종류를 비롯하여 『妙法蓮華經』 등 3종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각수 등 전문 인력만 활용한 사례는 『大藏一覽集』 등 9종이며, 조성주체만 도감과 관련된 사례는 『金剛般若波羅蜜經』 등 2종이다. 이들 26종류 가운데 그 조성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도감인력의 활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도감판 내지 준도감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東京分司都監의 행정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조성된 고종 38년의 『佛說阿彌陀經』과 충숙왕 복위 3년의 『白花道場發願文略解』도 같은 성격의 경판으로 분류할 개연성도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 해인사,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外藏, 조성주체, 조성체계, 高麗刻板, 教·俗 이원적 조직, 都監板, 準都監板

I. 머리말

가야산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이하 강화경판)은 크게 ‘大藏’과 ‘外藏’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장은 강화경판의 『大藏目錄』과 그 목록에 포함된 전체 경전의 경판인 대장과 달리, 『대장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전의 경판으로, 강화경판이 조성되던 13세기 중엽 이래 1959년까지 高麗國大藏都監(이하 대장도감)과 그 산하의 高麗國分司大藏都監(이하 분사도감) 및 朝鮮國刊經都監과 같은 국가 기관의 판각공간을 비롯하여 특정 사원과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한 경판 전체를 지칭한다. 해인사에 현존하는 외장 가운데 고려시대 경판은 총 71종이 확인되고 있다.¹⁾ 『補遺目錄』(또는 『補遺板目錄』)에 포함된 총 15종의 보유판(또는 보판) 가운데 14종의 경판(국보 제32호),²⁾ 해인사 고려각판이란 명칭으로 국보 제206호 및 보물 제734호에 각각 지정된 28종·26종의 경판, 그리고 고려시대 조성으로 짐작되는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章』³⁾·『佛說浮山不可思議經』⁴⁾·『三經序』⁵⁾ 3종의 경판이다.

- 1) 최영호, 『海印寺에 소장된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外藏’ 연구(I) - 高麗經板의 조성시기 재검토』, 『石堂論叢』5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한편, 현재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판 가운데 고려시대에 조성된 외장에는 대장도감·분사도감에서 조성된 경판으로 확인된 다음의 5종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그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다. 從義가 저술한 『天台三大部補註』 14권(乙巳歲分司大藏都監板), 惟簡 저술의 『宗門揆英集』 3권과 宗蹟 저술의 『重添足本禪苑清規』 2권 및 永明延壽 저술의 『註心賦』(이상 3종은 甲寅歲分司大藏都監板)(허홍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182~185쪽), 그리고 高麗의 均如가 저술한 『一乘法界圖圓通記』 2권(至元二十四年 丁亥五月 大藏都監板) 등이다(허홍식, 앞의 책, 1994, 182~185쪽;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54~55쪽; 정병삼,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미』, 『불교학연구』27, 불교학연구회, 2010). 이들 5종 경전의 경판은 都監 조성 경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해인사 소장 경판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그 범주를 정하였으며, 이들 경전의 경판 이외 고려시대나 그 이후 국가기관이나 여러 사원 및 개인들이 조성한 경판들을 외장의 범주 포함 여부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삼아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 2) 『보유목록』과 그 목록에 포함된 소위 보유판 15종 등 총 16종류의 강화경판의 ‘大藏’과 함께 1962년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16종 가운데 『보유목록』과 『禮念彌陀道場懺法』 10권(1502~3년 해인사에서 다시 조성)을 제외한 14종이 13세기 중엽이나 그 전후 경에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최영호, 앞의 논문, 2012, 285~289쪽.)
- 3) 서수생, 『海印寺의 寺刊 藏經에 대하여』, 『국어국문학』46, 1969, 66쪽;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138·139·140, 1991, 75~76쪽.
- 4) 임기영,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82~83쪽; 藤田亮策, 앞의 논문, 110·112~113쪽. 한편 본 경판의 조성시기를 조선시대로 파악한 사례(서수생, 앞의 논문, 68쪽)도 있으나, 판식 등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 5)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http://www.i80000.co.kr>)/사이버 장경판전/삼경서.

일반적으로 刊記와 刻手의 人名·法名만 새겨진 대장의 개별 경판과 달리, 외장의 경판에는 간기 및 각수 이름과 더불어 誌·跋 등으로 표현된 발원문도 비교적 풍부하게 새겨져 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들 경판에 새겨진 원천자료를 통해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조성 주체와 참여자의 출신성분·역할, 그들의 참여 배경과 목적 및 현실인식, 사업의 운영체계, 판각공간의 분포도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까지 새롭게 진단하고 있다.⁶⁾ 아울러 특정의 개별 경전을 새긴 경판의 조성 성격이나 사상사적 의미와 함께 조성 주체의 불교사상적 특성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⁷⁾

그러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외장에 포함된 경전의 경판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그 연유는 외장에 대한 조성

⁶⁾ 외장의 연구 경향과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최영호,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6;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석당학술총서 16, 세종출판사, 2009; 앞의 논문, 2012.

⁷⁾ 김광식,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8, 건국대, 1993;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 김상영, 『一然과 再造大藏經 補板』, 『중앙승가대학 논문집』2, 1993; 김상현, 『『法界圖記叢錄』考』, 『韓國史學論叢』, 千寬宇先生還曆紀念, 1989; 김윤곤,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체제에 관한 一考』, 『釜山女大史學』10·11합, 부산여자대학교, 1993;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江華京板『高麗大藏經』內·外藏의 특징』, 『民族文化論叢』18·19합,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外藏에 入藏된 『法界圖記叢錄』과 『宗鏡錄』의 분석』, 『民族文化論叢』20, 1999; 김호동, 『『禪門拈頌』과 眞覺國師 慧謨』, 『民族文化論叢』18·19합, 1998; 『『續高僧傳』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入藏된 韓國高僧의 行蹟』, 『民族文化論叢』20, 1999; 배상현, 『高麗時代人의 元曉觀과 『金剛三昧論經』의 入藏』, 『白楊史學』15, 신라대학교, 1998; 정병삼, 『고려후기 鄭晏의 불서간행과 불교 신앙』, 『불교학연구』24, 불교학연구회, 2009; 앞의 논문, 2010; 『고려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30, 불교학연구회, 2011; 채상식,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14세기 華嚴思想의 斷面』, 『奎章閣』6, 서울대 규장각, 1982;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至元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2; 『고령의 반룡사와 體元의 화엄사상』, 『退溪學과 韓國文化』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최영호, 『海印寺 所藏本『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4, 한국중세사학회, 1997; 앞의 책, 2009; 『海印寺 所藏本『大藏一覽集』刻成時期的 재검토와 판각의 현실관』, 『한국중세사연구』6, 1999; 『13세기 중엽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과 海印寺』, 『한국중세사연구』13, 2002; 『13세기 중엽 강화경판『고려대장경』의 조성공간과 경주 東泉社』, 『한국중세사연구』20, 2006; 江華京板『高麗大藏經』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敎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學會, 2001; 앞의 책, 2008; 한기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소재 均如의 著述과 思想』, 『한국중세사연구』4, 한국중세사학회, 1997; 『『祖堂集』과 新羅·高麗 高僧의 行蹟』, 『한국중세사연구』6, 1999; 허홍식, 『高麗高宗官版大藏經 補板의 範圍와 思想性』, 『美術史學論叢』,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1988; 앞의 책, 1994.

⁸⁾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지적되었다.

김윤곤, 앞의 논문, 1993; 앞의 책, 1993.

성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 외장의 조성사업에 담겨진 역사·문화적 가치나 실체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강화경관의 ‘외장’ 가운데 고려시대에 조성된 경관의 조성성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고려시대에 판각된 개별 경관의 조성주체와 체계를 검토한 다음, 관련 경관의 조성 성격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원천자료의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각주 등 새로운 원천 자료도 적극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향후 외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객관적인 가치와 위상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II. 조성주체와 그 성격

해인사에 현존하는 강화경관의 외장에 포함된 총 71종의 고려시대 경판들 가운데 조성주체와 조성경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補遺日錄』(또는 『補遺板目錄』)에 포함된 소위 보유판(국보 제32호), 해인사 고려각판이란 명칭으로 국보 제206호 및 보물 제734호에 각각 포함된 경판들이 있다.

우선, 소위 보유판에 편입된 경판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14종의 경판 가운데 刊記, 誌·跋文 등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된 발원문을 통해 조성주체를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11종류이다. 『宗鏡錄』 100권(分司大藏都監·分司南海大藏都監⁹⁾),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3권(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 全光宰¹⁰⁾), 『金剛三昧經論』 3권(優婆塞 鄭晏¹¹⁾), 『祖堂集』 20권(分司大藏都

9) 『宗鏡錄』(해인사 소장본) 권1(祿合), 제19장을 비롯하여 개별 권의 마지막 장에는 丙午歲分司大藏都監開板과 같은 형식의 간기가 표기되어 있으며, 『宗鏡錄』 권27(富合), 제17장에는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이라는 刊記가 새겨져 있다.

한편 『宗鏡錄』 권27, 17장의 간기 등을 고려하여 강화경관의 ‘대장’과 소위 보유판 등이 모두 남해지역에서만 판각하기도 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그 근거가 객관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다(최영호, 『南海地域의 江華京板『高麗大藏經』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2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7 ; 앞의 논문, 2006 ; 앞의 책, 2009.)

10)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해인사 소장본) 권3, 제38장 “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都官郎中 全光宰誌”. 한편 본 경판의 조성사업은 전광재가 주관하였으나, 분사도감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였다.

11) 『金剛三昧經論』(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60장 “優婆塞鄭晏誌”.

監¹²⁾, 『禪門拈頌集』 30권(斷俗寺住持 禪師 萬宗¹³⁾,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10권(分司大藏都監·大藏都監¹⁴⁾, 『十句章圓通記』 2권(僧統 天其의 제자¹⁵⁾, 『釋華嚴旨歸章圓通鈔』 2권(僧統 天其의 제자¹⁶⁾, 『華嚴經三寶章圓通記』 2권(僧統 天其의 제자¹⁷⁾, 『釋華嚴經教分記圓通鈔』 10권(僧統 天其의 제자¹⁸⁾, 『華嚴經探玄記』 20권(分司大藏都監¹⁹⁾) 등의 조성주체가 확인된다.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大藏의 조성 담당기구인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분담하여 판각한 경판이 1종, 분사도감에서 조성한 경판이 3종류이다. 그리고 全光宰와 鄭晏 및 萬宗이 조성한 경판이 각각 1종이며, 天其의 제자들이 4종을 경판을 조성하였다. 나머지 3종은 조성주체를 알 수 없다.

다음으로, 해인사 고려각판이란 명칭으로 국보 제206호에 지정되어 있는 28종의 경판 가운데 誌·跋文과 같은 발원문으로 조성주체를 새겨둔 사례는 18종류이다. 『妙法蓮華經』 7권(優婆塞 鄭奮²⁰⁾,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鹿鳴鄉 前長 李勝光 및 道人 克圓·了非²¹⁾,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順安山城防護別監 李榮²²⁾,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群生寺住持 探古²³⁾, 『金剛般若波羅蜜經』(優婆塞 鄭

12) 『祖堂集』(해인사 소장본) 권1, 제25장 등 각권의 마지막 장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와 같은 형식의 간기가 새겨져 있다.

13) 『禪門拈頌集』(해인사 소장본) 권30, 제33·34장의 다음 면 “斷俗寺住持禪師萬宗記”. 한편 본 萬宗의 記文과 더불어 고종 30년(1243) 음력 8월에 지은 逸庵居士 鄭晏의 跋文도 현존하고 있으나, 정안의 발문에서도 만종이 海藏分司의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본 경판의 조성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분석한다.

14)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해인사 소장본) 권1상, 제24장을 비롯하여 각 권의 마지막 장에는 대개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와 같은 간기가 새겨져 있으나, 권3하, 제28장에는 乙巳勢大藏都監開板이라는 간기가 표기되어 있다.

15) 『十句章圓通記』(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30卜 “高麗國江華京十九年庚戌月日 弟子等誌”.

16) 『釋華嚴旨歸章圓通鈔』(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44장 “辛亥五月日 弟子誌”.

17) 『華嚴經三寶章圓通記』(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38장.

18) 『釋華嚴教分記圓通鈔』(해인사 소장본) 권1, 제35卜 및 권4, 제36장. 한편 본 발원문의 형식이 승통 天其의 제자들이 조성한 해인사 소장본 『十句章圓通記』·『釋華嚴旨歸章圓通鈔』와 서로 거의 동일하고(金潤坤, 앞의 논문, 1993, 176~177쪽), 해인사 소장본 『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6, 제26장에 “江華京辛亥十一月書”라는 내용이 새겨진 사실을 통해 『釋華嚴教分記圓通鈔』도 고종 38년(1251) 11월에 승통 친기의 제자들이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 『華嚴經探玄記』(해인사 소장본) 권2, 제61幅 등 개별 권의 마지막 장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과 같은 형식의 간기가 새겨져 있다.

20) 『妙法蓮華經』(해인사 소장본) 권7, 제15장 “丙申年十二月十五日 優婆塞鄭奮誌”.

21)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해인사 소장본) 권10, 제23장 “時乙未七月日 謹誌 財主鹿鳴鄉前長李勝光 同願道人等克圓了非”.

22)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해인사 소장본) 권1, 제15장 “十二月日誌 順安山城防護別監同縣令興威衛攝散員李榮”.

晏²⁴⁾, 『華嚴經普賢行願品(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優婆塞 鄭晏²⁵⁾, 『法華經普門品(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山人 禪从²⁶⁾, 『人天寶鑑』 2권(包山 禪从²⁷⁾, 『佛說預修十王生七經』(I)(優婆塞 鄭晏²⁸⁾, 『三十八分功德疏經』(海印典炷 体元²⁹⁾, 『佛說阿彌陀經』(東京副留守 朴隨³⁰⁾, 『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居悅 등³¹⁾,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伽耶山 下鉅寺³²⁾,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晉陽侯 崔瑀³³⁾,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京山府副使 田盧 및 新荷寺의 典香인 正玄³⁴⁾, 『南陽先生詩集』 2권(曹溪沙門 白希諗³⁵⁾, 『白花道場發願文略解』(沙弥 體元³⁶⁾, 『唐賢詩範』(金剛□院³⁷⁾ 등의 조성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원 주도의 조성 경관은 고종 28년(1241) 伽耶山 下鉅寺 조성의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 같은 왕 33년 金剛□院 조성의 『唐賢詩範』 등 2종이 확인된다. 승려들의 조성 주도 경관은 같은 왕 원년의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³⁸⁾ 충렬왕 원년(1275)의 『法華經普門品(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같은 왕 14년의 『人天寶鑑』, 충혜왕 원년(1331)의 『三

23)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해인사 소장본) 제12장 “貞祐二年甲戌十月日道人迅機誌”.
 24) 『金剛般若波羅蜜經』(해인사 소장본) 제10장 “乙巳三月日 優婆塞鄭晏誌”.
 25) 『華嚴經普賢行願品』(해인사 소장본) 제12장 “乙巳正月望日 優婆塞鄭晏誌”.
 26) 『法華經普門品(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해인사 소장본) 제4장 “至元十二年乙亥二月日 山人禪从寫”.
 27) 『人天寶鑑』(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40~41장 “至元二十七年庚寅七月八日 包山禪从題”.
 28) 『佛說預修十王生七經』(해인사 소장본) 제16장 “丙午三月日 優婆塞鄭晏誌”.
 29) 『三十八分功德疏經』(해인사 소장본) 제4卜 “至順二年辛未冬十二月日 海印典炷覺海大師木庵 体元題 施主月光大師 忍元誌”.
 30) 『佛說阿彌陀經』(해인사 소장본) 제4장 “辛亥四月日 刻手道人水安 東京副留守管句學士試禮賓 少卿朴隨”. 한편, 學士의 원문이 學事이나 뜻을 고려하여 고쳤다.
 31) 『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해인사 소장본) 제2장 “至正九年閏七月日……釋居悅幹緣”.
 32)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해인사 소장본) 권3, 제12장 다음 면 “辛丑五月日 伽耶山下 鉅寺開造”.
 33)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해인사 소장본) 제32장 “晉陽侯崔瑀……時丁酉十二月日謹誌”. 한편 晉陽侯의 원문이 晉陽侯이나 뜻을 고려하여 고쳤다.
 34)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해인사 소장본) 제19卜 “至元十五年五月日誌……京山府副使殿中內給事田盧”.
 35) 『南陽先生詩集』(해인사 소장본) 권상, 제1~1장 “時己酉三月 日前禮部員外郎羅西李涵澤之序”.
 36) 『白花道場發願文略解』(해인사 소장본) 제19~20장 “後學沙弥木庵體元誌”.
 37) 『唐賢詩範』(해인사 소장본) 권하, 11卜 “丙午歲□□金剛□院開板”.
 38) 본 경관은 群生寺의 住持인 重大師 探古가 재물을 보시하여 경관을 판각하였으며, 승려들이 글을 짓고 경관을 판각하였으므로, 군생사라는 사원에서 주도한 경관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나, 일단 여기서는 重大師 探古의 주도로 분류하였다.

十八分功德疏經』, 충정왕 원년(1349)의 『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³⁹⁾ 고종 36년경의 『南陽先生詩集』, 충숙왕 복위 3년(1334) 『白花道場發願文略解』⁴⁰⁾ 등 7종이다. 세속출신의 개인이 주도한 경우는 우바새 鄭晏(鄭奮)이 고종 23년에 조성한 『妙法蓮華經』 등 4종, 같은 왕 22년 鹿鳴鄉(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의 前戶長인 李勝光이 주도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고종 23~44년이나 그 직후 경에 順安山城防護別監 李榮이 조성한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⁴¹⁾ 고종 38년 4월 東京副留守 朴隨가 조성한 『佛說阿彌陀經』,⁴²⁾ 晉陽侯 崔瑀(崔怡)가 같은 왕 24년 조성을 주도한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 충렬왕 4년 京山府副使 田盧 등이 주도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등 총 9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인사 고려각판이란 명칭으로 보물 제734호로 지정되어 있는 26종 경판 가운데 발원문을 통해 조성주체가 확인되는 경우는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西海郡夫人 崔氏 등⁴³⁾),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海印寺⁴⁴⁾), 『大般若經科(大般若波羅蜜多經科文)』(道人 惠圓⁴⁵⁾), 『大方廣佛華嚴經觀音智識品』(海印沙門 体元⁴⁶⁾), 『歷代年表』(仁興社⁴⁷⁾) 5종류이다.⁴⁸⁾ 사원 및 승려들이 각각 주도하여 조성한 경판이 각각 2종류이며,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 1종은 西海郡夫人 崔氏와 小兒 李氏 및 道人 一眞 등 승려와 세속

39) 본 경판을 조성한 주체의 출신성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居悅幹緣의 앞 글자가 釋이라 표기해 두었으므로, 승려로 판단하였다.

40) 본 경판은 雞林府(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의 행정조직 체계를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므로, 국가행정기구의 조성 경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채상식,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 14세기 華嚴思想의 斷面』, 1982; 앞의 책, 1991, 208쪽; 남권희,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 研究』, 『新羅文化』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200쪽; 최영호, 『13세기 중엽 경주지역 分司東京大藏都監의 설치와 운영형태』, 『新羅文化』27, 동국대학교, 2006, 106~108쪽.)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고승 體元 주도의 경판으로 분류하였다.

41) 최영호, 앞의 논문, 2012, 292~293쪽.

42) 본 경판은 국가행정기구의 주도로 조성한 경판으로 분류될 수 있다(최영호,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9, 95~97쪽.)

43)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해인사 소장본) 제1장의 다음 면 “同願 西海郡夫人崔氏小兒李氏道人一眞 刻字大師釋光”.

44)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해인사 소장본), 마지막장 “丙申六月日誌 刻手大升 海印寺彫造”.

45) 『大般若波羅蜜多經科文』(해인사 소장본) 제3장 “道人惠圓 庚寅年開板”.

46) 『大方廣佛華嚴經觀音智識品』(해인사 소장본) 제10卜 “至順二年十月日 寓出現盤龍社佛華閣 海印沙門木庵向如体元 謹沐手焚香題”.

47) 『歷代年表』(해인사 소장본) 마지막장 “至元十五仁興社開板”.

48) 이들 5종의 경판 이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해인사 소장본) 제1장의 권미제 다음에도 “御梅縣居住男兒乙亥 特爲今生則腹病除□ 後世則速証菩提之類 佛頂心……”라는 발원문이 표기되어 있으나, 그 판각 주체를 파악할 수 없다.

인의 教俗 협조체계로 조성되었다.⁴⁹⁾

이상에서 강화경관의 외장 가운데 刊記와 더불어 誌·跋文 형식의 발원문을 통해 경관의 조성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소위 보유판이 11종, 국보 제206호가 18종, 보물 제734호가 5종으로 총34종류이다. 조성주체가 국가행정조직인 경우는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분담이 1종, 분사도감이 3종으로 총4종류이며, 사원의 경우가 4종이다.⁵⁰⁾ 승려의 사례가 14종이며,⁵¹⁾ 세속인의 경우는 14종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사원은 당대 화엄종 계열에 소속된 伽耶山 下鉅寺와 海印寺(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⁵²⁾ 普覺國尊 一然이 당시 머물러 있던 선종의 迦智山門 소속인 仁興社(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비슬산 위치),⁵³⁾ 金剛□院이다. 개별 승려로는 무인집권자 崔怡의 아들로 閻崛山門 계열인 松廣社(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군 송광면)의 眞覺國師 慧謙에게 출가하였다가 斷俗寺(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군 지리산)의 住持를 역임한 禪師 萬宗,⁵⁴⁾ 內道場의 殿主와 興王寺(지금의 개성직할시 덕적산의 남쪽 기슭)의 教學僧統을 지낸 화엄종 계열 고승인 天其⁵⁵⁾의 제자, 화엄종 소속으로 짐작되는 群生寺의 住持인 重大師 探古,⁵⁶⁾ 包山(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仁興社의 禪師인 禪从,⁵⁷⁾ 海印寺의 典姓인 覺海大師 体元,⁵⁸⁾ 그 소속 종단이나 사원을 알 수 없는 居悅 및 道人 惠圓, 曹溪의 沙門인 白希諡 등이다. 이들

49)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해인사 소장본)의 조성주체는 일단 세속인 西海郡夫人 崔氏로 분류하고 뒤에서 教俗 이원적 협조체계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50)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如來出現品』(해인사 소장본)의 조성주체도 대장도감의 산하 판각공간인 하거사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최영호,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2009, 154~170쪽), 사원 주도의 경관은 최소 5종류로 확대될 수 있다.

51) 한편 『法界圖記叢錄』의 저자가 승통 천기라는 사실(김상현, 앞의 논문, 179쪽)에서 천기의 제자들이 이 경관도 조성하였다(한기문, 앞의 논문, 1997; 최영호, 앞의 논문, 2006)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천기의 제자들이 조성한 경관은 1종 더 추가될 수 있다.

52) 최영호,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2008, 182~200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공간과 海印寺의 역할』, 『문물연구』2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47쪽.

53) 채상식, 앞의 논문, 1982; 앞의 책, 1991, 105~106쪽.

54)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崔忠獻 부 崔怡傳; 채상식, 앞의 책, 1991, 119쪽; 허홍식, 앞의 책, 1994, 168~170쪽.

55) 『東國李相國後集』 권3, 古律詩 “次韻諸君所賦山呼亭牡丹并序……次韻和成九首 奉寄殿主內道場天其僧統”; 최영호, 앞의 논문, 2001; 앞의 책, 2008, 120~122·183~184쪽.

56)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해인사 소장본)이 당대 화엄종 계열인 符仁寺 소속의 大師 淸守·孝如의 지원을 받은 사실에서 본 경관의 구성에 재물을 시납한 群生寺의 주지 探古도 같은 계열 승려로 볼 수 있다.

57) 채상식, 앞의 책, 1991, 105~106쪽.

58) _____, 앞의 논문, 1982; 앞의 책, 1991, 18·202쪽.

사원과 승려들은 화엄종을 비롯하여 선종의 迦智山門·閻嶠山門 등 다양한 계열 출신들이 포괄되어 있으며, 고위 승계를 가진 대덕고승과 더불어 일반 승려 출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속인들의 출신성분도 다양하였다. 당대 무인집권자인 晉陽侯 崔瑀(崔怡)를 비롯하여 그의 처남으로 國子祭酒를 지낸 이후 南海(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지역에 퇴거하다가 다시 知門下省事·參知政事를 역임한 優婆塞 鄭晏(鄭奮),⁵⁹⁾ 慶尙道按察副使 全光宰와 東京副留守 朴隨 및 京山府副使 田盧 및 順安山城防護別監 李榮과 같은 지방행정관료, 지역사회의 토착세력인 鹿鳴鄉의 前戶長 李勝光, 海州崔氏 文憲公 崔冲의 후손으로 봉작을 받은 西海郡夫人 崔氏⁶⁰⁾ 등이다.

이러한 조성주체 가운데 상당수의 사원과 승려 및 세속인들은 강화경관의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가야산 해인사와 하거사는 대장도감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공간 내지 그 산하의 판각공간으로 역할하였다.⁶¹⁾ 斷俗寺가 분사도감의 판각공간으로 활용되고⁶²⁾ 단속사의 주지 만종이 海藏分司에 재물을 보내고 工人을 모집하여 『禪門拈頌集』 30권을 새긴 사실⁶³⁾에서 만종도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敎學僧統 天其가 승통 守其와 함께 강화경관 조성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으므로,⁶⁴⁾ 그 제자들도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무인집권자 崔怡 역시 국왕 고종으로부터 강화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훈 조서를 받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⁶⁵⁾ 정안도 강화경관 조성사업에 절반의 사재를 희사하였다고 표현될 만큼 상당한 재산을 제공하는 등 중요 역할을 분담하였다.⁶⁶⁾ 또한 전광재는 진주목과 더불어 경상도지역에 설치된 분사도감의 최고 책임자로 역할하였으며, 東京副留守 朴隨는 동경지역에 설치

59) 『고려사』 권100, 鄭湖瞻 부 鄭晏傳.

60) 최영호, 앞의 논문, 2012, 301~302쪽.

61) _____, 앞의 논문, 1997; 앞의 논문, 2002; 앞의 책, 2009, 124~189쪽.

62) 김운곤, 「高麗大藏經의 造成機構의 刻手의 成分」,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상, 碧史李佑成 敎授停年退職紀念, 1990;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2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造處」, 『人文科學』12, 경북대학교, 1998; 앞의 책, 2002, 159~186·508~565쪽.

63) 『禪門拈頌集』(해인사 소장본) 권30, 제33·34장의 다음 면 “斷俗寺住持禪師 萬宗記”.

64) 최영호, 앞의 논문, 2001; 앞의 책, 2008, 120~122쪽.

65) 『고려사』 권129, 열전, 崔忠獻 부 崔沆傳; 최영호, 앞의 논문, 2001; 앞의 책, 2008, 110~113쪽.

66) 『고려사』 권100, 鄭湖瞻 부 鄭晏傳; 최영호, 앞의 논문, 1997, 260~269쪽; 앞의 논문, 2001; 앞의 책, 2008, 115~119쪽.

된 동경분사도감의 최고 책임자였을 개연성이 높기도 하다.⁶⁷⁾

따라서 강화경관 조성사업과 직접 연결된 사원이나 승려 및 세속인들이 주도하여 관각한 경관 15종⁶⁸⁾은 都監板 내지 準都監板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과 『禪門拈頌集』은 분사도감에다가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분사도감판으로 그 성격을 규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 15종에다가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조성된 4종을 합치면 그 종류는 19종으로 증가된다.

Ⅲ. 조성체계와 그 성격

강화경관의 외장에 포함된 경관들 가운데 사원이나 승려 및 세속인 주도의 경관과 더불어 刊記나 誌·跋文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된 발원문을 통해 조성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개별 경관의 경우도 각수⁶⁹⁾ 등과 같은 원천 자료의 분석으로 그 조성성격을 일정 부분 진단할 수 있다.

우선, 소위 보유판 14종 가운데 개인이 주도하여 조성한 7종의 경관들도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의 인적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全光宰가 주도하여 조성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3권은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대장이나 외장의 경관을 직접 관각한 孝純·宝奇·自奇·宝龍·天正·全一 등과 같은 각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분사도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⁷⁰⁾ 鄭晏이 주도하여 조성한 『金剛三昧經論』 3권의 각수인 王柱·三旆, 단속사 주지 萬宗이 주도하여 만든 『禪門拈頌集』 30권의 각수인 惠耳·三旆·道宣, 교학승통 天其의 제자들이 주도한 『十句章圓通記』 2권의 각수인 惠堅·光父와 『釋華嚴旨歸章圓通鈔』 2권의 각수 公甫·李義, 『釋華嚴經教分記圓通鈔』 10권의 각수 性一·李義·道宣 등도 각각 대장도감이나

67) 최영호, 앞의 책, 2009, 109~111쪽.

68) 이 15종에는 대장도감의 설치 원년인 고종 23년 해인사에 조성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해인사 소장본)을 제외하였다. 이 다음해부터 완성된 강화경관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단 제외하였다.

69) 이들 경관의 조성성격은 각수 자료 이외, 경관의 나무종류를 비롯하여 서체나 판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나무 종류와 경관의 형태는 현재 분석 자료와 지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활용을 보류하였다.

70)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邊界線 소개 인명의 판각사업 참여형태, 『한국중세사연구』 2, 한국중세사학회, 1995, 171~176쪽.

분사도감에서 대장과 외장에 포함된 경판들을 조성하였다.⁷¹⁾ 또한 천기의 제자가 주도하여 조성한 『華嚴經三寶章圓通記』 2권도 지문의 형식이나 서체 및 경판의 형식이 『十句章圓通記』 등과 거의 같다.⁷²⁾는 사실에서 본 경전의 경판도 都監의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성 주체를 새겨두지 않은 『法界圖記叢髓錄』·『大藏一覽集』·『慈悲道場懺法』 3종류도 都監의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法界圖記叢髓錄』 4권의 각수 昌茂·升有·光乂·道宣, 『大藏一覽集』 11권의 각수 李義·性一·惠堅 등이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각수로 활동하였으며,⁷³⁾ 그 서체도 率更體⁷⁴⁾라는 사실에서 2종의 경판도 都監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慈悲道場懺法』 10권도 서체(率更體)나 판각기법 및 형식이 대장에 편입된 경판과 동일하며,⁷⁵⁾ 그 참여 각수도 自玄·金鍊·尹弘 등으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대장과 외장에 편입된 경판을 직접 판각하였다.⁷⁶⁾는 사실에서 본 경판도 都監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보 제206호에 지정된 18종의 경판 가운데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 때 조성된 다음 경판들도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의 인력이 활용되었다.⁷⁷⁾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의 필사자 겸 각수인 山人 志閑이 대장도감에서 강화경판의 대장에 포함된 경판을 조성하였으며,⁷⁸⁾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를 조성한 伽耶山 下鉅寺는 대장도감과의 인력의 교류공간이거나

71) 최영호, 앞의 논문, 1999; 앞의 책, 2008, 62~65쪽;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190~192쪽; 앞의 책, 2009, 139쪽.

72) 김윤곤, 앞의 논문, 1993, 176~177쪽; 박영수,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佛敎學論文集』, 白性都博士頌壽紀念, 동국문화사, 1959, 441쪽; 서수생, 『八萬大藏經板 研究: 특히 二重板과 補遺板에 대하여』, 『韓國學報』9, 1977, 13쪽; 허홍식, 앞의 책, 1994, 179쪽.

73) 최영호, 앞의 논문, 1999; 앞의 책, 2008, 61~66쪽.

74) 서수생, 앞의 논문, 1997, 13쪽.

75) _____, 앞의 논문, 1997, 13쪽; 천혜봉, 『高麗時代의 典籍』, 『美術史學研究』184, 한국미술사학회, 1989, 50쪽; 김윤곤, 앞의 논문, 1993, 175~179·187~201쪽; 앞의 논문, 1999, 161쪽.

76) 김윤곤, 앞의 논문, 1993, 180~187쪽; 최영호, 앞의 책, 2008, 162~163쪽.

77) 이들 경판 가운데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등 대장도감판이 실제로 산출된 고종 24년 이전의 조성 경판을 제외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의 각수 符仁寺의 大師 孝如是 고종 원년(1213) 본 경판을 판각한 이후인 같은 왕 24~25년에도 대장도감에서 『放光般若波羅蜜經』 권19(重함) 제25·28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妙法蓮華經』의 각수 山人 明覺은 같은 왕 23년 본 경판의 판각 이후인 같은 왕 24~30년에도 대장도감에서 『放光般若波羅蜜經』 권1(榮함), 제1~4장 등을 조성하였다(최영호, 『고려 무인집권기 승려지식인 山人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21,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5; 앞의 책, 2008, 153·187쪽.)는 사실은 주목된다.

78) 최영호, 앞의 논문, 1995;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6; 앞의 책, 2008, 155쪽.

대장도감의 판각공간으로 진단되었다.⁷⁹⁾ 『唐賢詩範』과 『南陽先生詩集』을 판각한 각수 惠堅 등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강화경판의 대장과 외장에 편입된 경판을 판각하였다. 같은 왕 33년 鄭晔이 주도하여 조성한 『佛說預修十王生七經』(I)의 각수인 三旆, 그리고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의 각수인 大升·釋光·冲叙 등도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강화경판의 대장과 외장에 편입된 경판들을 조성하였다.⁸⁰⁾ 이와 같이 국보 제206호에 지정된 경판으로 조성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경판 가운데 6종의 경전이 13세기 중엽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강화경판의 대장을 조성하던 시기에 都監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완성하였다.

이들 이외,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고려각판 가운데 발원문 등을 통해 조성주체를 알 수 없는 다음의 4종 경판들도 도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13세기 중엽인 고려 고종 때 조성된 晉本 『大方廣佛華嚴經』의 각수 天圭(天佳)·惠耳·山甫·了如,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의 각수 宝己, 周本 『大方廣佛華嚴經』의 각수인 敦一·釋光·大升·立成·冲叙(中叙)·戒如도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 등에서 강화경판의 대장과 외장에 편입된 경판의 조판에 관여하였다.⁸¹⁾ 『大方廣佛花(華)嚴經隨疏演義鈔』 『如來出現品』의 각수인 道宣·惠耳 등도 도감의 각수로 활동하였다.⁸²⁾

이처럼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고려각판 가운데 최소 10종류의 경판이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의 전문 각수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보물 제734호로 지정된 26종의 경판 가운데 조성주체가 새겨진 다음의 2종 경판도 都監의 각수와 관련되어 있다. 고종 23년 조성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각수 大升은 같은 왕 25~26년 및 33년에 대장도감에서 『摩訶般若波羅蜜經』 권11(薑합), 제11~18장 등을 판각하였고,⁸³⁾ 고종 때

79) 최영호,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9, 168·172~174쪽.

80) _____,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8, 191·196쪽 ; 앞의 논문, 2012, 50쪽.

81) _____,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9, 162~169쪽 ;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6 ; 앞의 책, 2008, 167~168쪽 ; 앞의 논문, 2012, 302~306쪽. 이들 3본 『大方廣佛華嚴經』의 조성시기가 고려 고종 때로 각수들이 도감에 소속되기 이전에 본 경판을 판각하였는지 그 전후에 판각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본 경판의 각수들이 여러 명이므로 일정한 조직에서 확보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 각수들이 도감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본 경판을 판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최영호 논문(2012), 306쪽에서는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 경판도 12세기 중엽에 조성되었다”고 하였으나, ‘13세기 중엽’의 오자라는 사실을 밝혀 둔다.

82) _____,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9, 154~170쪽.

83) _____, 앞의 논문, 2012, 50쪽.

새긴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의 각수 大師 釋光도 都監의 각수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조성시기가 대장도감관이 산출되기 1년 이전이고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의 조성시기도 고려 고종 때로 정확하지 않아, 이들 각수들은 이들 경판의 조성시기가 도감의 활동 때인지 그 전후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들 각수들은 도감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외, 발원문 등을 통해 조성주체를 알 수 없는 보물 제734호로 지정된 고려 각판 가운데도 13세기 중엽 조성된 『金光明經』의 각수 元仁文·呂溫 등도 분서도감 등에서 강화경판의 대장에 포함된 경판을 직접 판각하였으나,⁸⁴⁾ 그가 본 경판을 도감의 각수로 활동하던 당시인지 그 전후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상에서 사원이나 승려 및 세속인으로 조성주체가 밝혀진 외장 가운데 최소 13종류(소위 보유판 7종, 국보 제206호 6종)의 개별 경판은 대장도감이나 분서도감의 전문 각수 인력이 활용되어 조성되었다. 그리고 조성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최소 7종류(소위 보유판 3종, 국보 제206호 4종)의 경판도 都監의 전문 각수들이 직접 판각하였으며, 보물 제734호에 포함된 3종의 경판을 판각한 각수들은 당시 도감의 소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이런 점에서 외장에 편입된 최소 20종의 경판들은 대장도감이나 분서도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성된 都監板 내지 準都監板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화경판의 외장에 편입된 경판으로 발원문을 통해 그 조성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별 경판 가운데 그 대부분이 사원 간의 협조체계, 또는 敎俗이원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성되었다.

우선, 사원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성된 경판은 다음과 같다.

가. 龍壽寺의 社堂에 소속한 승려 玄揆가 主張을 담당하며, 下鉅寺의 승려 天章과 戒湛이 勸緣을 맡고, (용수사의) 승려 聞契가 校勘을 하여, 신축년(고종 28 ; 1241) 5월 모일에 伽耶山 下鉅寺에서 새겨 만든다.⁸⁵⁾

고종 28년(1241) 5월 가야산 하거사에서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의 경판을 조성할 때, 용수사의 社堂 玄揆가 본 경판 조성사업의 책임자인

⁸⁴⁾ 김윤근,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2, 508~530쪽.

⁸⁵⁾ “龍壽寺社堂比丘 玄揆 主張/ 下鉅寺道人 天章 戒湛 勸緣/ 道人 聞契 校勘/ 辛丑五月 日伽耶山 下鉅寺 彫造”(『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해인사 소장본) 권3, 제12장 다음 면). 본 발원문은 최근의 글에서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개하였다(崔永好, 앞의 논문, 1997, 137쪽).

主張을 맡고, 하거사의 승려 天章·戒湛 및 聞契가 보시를 권하는 勸緣과 경전의 교정인 校勘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안동의 예안면에 위치한 용수사는 義天의嫡嗣인 無導智國師 戒應의 법손들이 개창·주지한 화엄종 계열 사원으로 고려 의종 때 사액되고 명종 때 창건불사가 마무리되었으며,⁸⁶⁾ 하거사는 우왕 3년(1377) 화엄종 사원인 浮石寺의 住持 因(圓)應이 대시주가 되어 義湘의 진영을 봉안한 祖師堂의 조성불사에 하거사의 住持 禪圭도 관여하는⁸⁷⁾ 등 화엄종 사원이었다.⁸⁸⁾ 따라서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 경판의 조성사업 과정에서는 화엄종 계열의 용수사와 하거사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같은 계열 소속의 사원 간의 협조체계를 경판을 조성한 경우와 같이 2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고종 때 교학승통 천기의 제자들은 『釋華嚴旨歸章圓通鈔』 경판의 조성과정에서 東泉社(경상북도 경주시)의 협조를 받아 교정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⁸⁹⁾ 『釋華嚴教分記圓通鈔』의 간행 때에도 法水寺(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가야산)의 협조를 받아 그 소장본을 원천 텍스트로 삼는⁹⁰⁾ 등 같은 화엄종 계열의 사원이나 그 승려들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경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동일 계열 소속 사원 간의 협조로 수행된 경판 가운데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와 더불어 『大方廣佛花(華)嚴經隨疏演義鈔』 『如來出現品』도 대장도감의 산하의 판각공간에서 조성되었다.⁹¹⁾ 따라서 사원 간의 협조체제로 수행된 경판의 상당수가 都監板의 판각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속 이원적 협조체제로 경판을 조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나. 집안에 저축해둔 재산을 죄다 회사하여 『楞嚴經戒環疏』의 경판을 새기고 인경하여 끝없이 베푸는 사람은 을미년(고종 22 ; 1235) 7월 모일 삼가 글을 기록한다. 財主는 鹿鳴鄉의 전戶長 李勝光이며, 도인 克圓과 了非가 함께 기원한다.⁹²⁾

86) 허홍식, 『龍壽寺 開闢記』, 1994, 662~663쪽.

87) 이기백 편, 『浮石寺祖師堂棟樑記』,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87, 235~236쪽.

88) 최영호,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9, 138~139쪽.

89) 『釋華嚴旨歸章圓通鈔』(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44장 “辛亥五月日 弟子誌”.

90) 『釋華嚴教分記圓通鈔』(해인사 소장본) 권4, 제36장, 발원문.

91) 최영호, 앞의 논문, 1997 ; 앞의 책, 2009, 162~174쪽.

92) “盡捨家儲財/ 板楞嚴經戒環疏印施無窮者/ 時乙未七月日謹誌/ 財主鹿鳴鄉前長李勝光/ 同願道人等克圓了非”(『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해인사 소장본) 권10, 제23장.)

다. 함께 기원한 이는 西海郡夫人 崔氏와 어린아이 李氏 및 도인 一眞이며, 大師 釋光이 글자를 새겼다.⁹³⁾

라. 新荷寺의 典香인 正玄과 함께 맹세하여 경관을 새기고 인경하여 끝없이 배운 이는 至元 15년(충렬왕 4 ; 1278) 5월 모일 글을 기록한다. 棟梁인 도인 正玄과 京山府副使·殿中內給事 田盧이다.⁹⁴⁾

고종 22년 7월 鹿鳴鄉의 전 호장 李勝光이 재산을 희사하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경관을 조성할 때 승려 克圓·了非도 함께 관여하였으며, 13세기 중엽 고종 때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 경관을 만들⁹⁵⁾ 때 西海郡夫人 崔氏와 어린 아이 李氏 및 승려 一眞이 함께 기원하고 대사 釋光이 각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충렬왕 4년(1278) 5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경관을 조성하면서도 新荷寺의 典香인 正玄과 京山府副使 田盧가 협조하였다.

경관 조성과정에서 이러한 교속 이원적인 협조체계는 고종 35년 9월 全光宰의 주도로 조성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의 조성불사에서도 확인된다. 경상도 안찰부사로 晉州牧(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 분사도감의 행정 책임을 맡은 전광재가 본 경관을 조성하면서 그 간사인 比丘 天巨에게 본 경관의 판각 사업에 필요한 인력 등의 모집을 부탁하였으며, 禪伯인 擧上人이 본 경전의 초본을 교정 작업하는 등 교속 사이에 분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⁹⁶⁾

또한 『禪門拈頌集』의 조성과정에서도 단속사 주지 만종이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逸庵居士 鄭晏이 그 발원문을 지은 사례,⁹⁷⁾ 정안이 『妙法蓮華經』을 조성할 때 승려지식인 山人 明覺에게 요청하여 본 경관을 판각한 다음 인경하여 베풀게 한 사실,⁹⁸⁾ 順安山城防護別監 李榮이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

93) “同願西海郡夫人崔氏小兒李氏/ 道人一眞 刻字大師釋光”(『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해인사 소장본) 제1장의 다음 면). 본 발원문의 원문은 기존 오류를 최근에 바로잡아 소개하였다(崔永好, 앞의 논문, 2012, 301쪽.)

94) “與新荷寺典/ 香正玄同誓刻板印施無窮者/ 至元十五年五月日誌/ 棟梁道人正玄/ 京山府副使殿中內給事田盧”(『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해인사 소장본) 제19卜).

95) 최영호, 앞의 논문, 2012, 301~302쪽.

96)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해인사 소장본) 권3, 제38장 “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都官郎中 全光宰誌”; 최영호, 앞의 논문, 1995 ; 앞의 논문, 2006 ; 앞의 책, 2009, 108~114쪽.

97) 『禪門拈頌集』(동아대 소장 인경본) 권30 “癸卯仲秋 逸庵居士鄭晏跋”.

品』의 조성불사를 하면서 山人 志閑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은 사례,⁹⁹⁾ 東京副留守 朴隨가 『佛說阿彌陀經』을 조성할 때 도인 水安이 각수로 활동한 사례¹⁰⁰⁾ 등에서도 외장 경판의 조성불사가 교속 이원적 협조체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판의 조성과정에서는 복수의 사원이나 그 소속의 승려가 세속과 연계된 교속 이원적 협조체계를 유지한 사례도 있다.

마. 貞祐 2년 갑술년(고종 원년 ; 1214) 11월 모일 도인 迅機가 기록하였고, 無求居士 周通富가 글씨를 썼으며, 群生寺의 주지인 重大師 探古가 재물을 시주하여 경판을 간행하였다. 符仁寺의 大師 淸守와 孝如가 경판을 새겼다.¹⁰¹⁾

바. 致和 원년 무진년(충숙왕 15 ; 1328) 10월 海印山寺에 있으면서 集解하였던 후학인 사미 木庵 體元이 글을 기록하였다. 覺華寺의 주지인 비구 性之가 校勘을 맡았다. 元統 2년 갑술년(충숙왕 복위 3 ; 1334) 7월 모일 雞林府에서 개관하였다. 함께 기원하는 이는 각수인 승려 甫英, 色記官 崔汴, 別色 전 부호장 李奇이다. 함께 바라는 수재 金神器가 글자를 쓴다. 함께 기원하는 이는 東泉社 도인 善珣, 雞林府權知尹·承奉郎·都官佐郎·知蔚州事 겸 勸農使 盧慎이다.¹⁰²⁾

고종 원년 11월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 경판을 조성하면서 群生寺의 주지인 重大師 探古가 재물을 시주하여 경판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符仁寺(대구광역시 팔공산)의 大師 淸守와 孝如가 각수 역할을 분담하는 말는 한편, 세속 출신의 無求居士 周通富가 글씨 쓰기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본 경판

98) 『妙法蓮華經』(해인사 소장본) 권7, 제15장 “丙申年十二月十五日 優婆塞鄭奮誌”.

99)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해인사 소장본) 권1, 제15장 “十二月日誌 順安山城防護別監同縣令興威衛攝教員李榮”.

100) 『佛說阿彌陀經』(해인사 소장본) 제4장 “辛亥四月日 刻手道人水安 東京副留守管句學士試禮賓少卿朴隨”. 한편, 學士의 원문이 學事이나 뜻을 고려하여 고쳤다.

101) “貞祐二年甲戌十月日道人迅機誌/ 無求居士周通富書/ 群生寺住持重大師探古/ 施財刊板/ 符仁寺大師淸守孝如刻”(『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해인사 소장본) 제12장).

102) “致和元年戊辰十月在海印/ 山寺集解/ 後學沙弥木庵體元誌/ 覺華寺住持比丘性之校勘/ 元統二年甲戌七月日雞林府開板/ 同願刻手僧甫英/ 色記官崔汴/ 別色前副戶長李奇/ 同願秀才金神器書/ 同願東泉社道人善珣/ 雞林府權知尹承奉郎都官佐郎知蔚州事兼勸農使盧□□”(『白花道場發願文略解』(해인사 소장본) 제19~20장). 한편 盧□□ 가운데 □□ 부분은 공란이나 慎자가 들어가야 옳다(원통 3년 정월 鷄林府 개관 『達磨大師觀心論』; 채상식, 앞의 논문, 1982; 앞의 책, 1982, 208쪽; 남권희, 앞의 논문, 2001, 200쪽.) 본 발원문의 원문은 최근 다시 소개하기도 하였다(최영호,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9, 107쪽.)

의 조성사업은 복수의 사원 출신 승려들과 함께 세속인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숙왕 15년(1328) 10월 『白花道場發願文略解』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사원 출신의 승려와 雞林府(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라는 지방 행정조직 체계가 상호 협조하였다. 海印山寺(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의 木庵 體元이 集解와 誌文을 담당하고, 覺華寺(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각화산)의 주지 性之가 校勘을 맡는 등 경관 판각의 사전 작업은 복수의 사원 출신 고승이 맡는 한편, 경관의 실질적 판각작업은 계림부의 행정조직가 맡는 형태의 교속 이원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위의 사원들 가운데 군생사의 소속 사원이 화엄종으로 짐작되나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화엄종 사원인 부인사와 동일 계열의 사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白花道場發願文略解』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화엄종 사원인 해인사와 함께 관여한 각화사는 같은 화엄종 계열¹⁰³⁾으로 동일 소속 사원 사이에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장 경관의 조성사업은 동일 사원 간의 분담·협조체계나 교속 이원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 교속 간의 협조 체계에는 복수의 사원이나 그 출신의 승려들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白花道場發願文略解』의 조성사업에 관여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교속 이원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雞林府權知尹 盧愼이 행정 책임을 맡고, 東泉社의 승려 善珣이 함께 협조하고 있으며, 崔汙과 전 부호장 李奇가 실무인 色記官 및 別色을 각각 맡고 있다. 그리고 수재 金神器가 글자를 쓰고, 승려 甫英이 각수를 분담하였다. 본 경관의 조성을 직접 맡은 교속 이원적 행정 실무 및 현장체계는 東京지역이나 淸州牧의 분사도감이나 대장도감의 운영형태와 거의 동일하며, 진주목 분사도감에서 조성된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의 조성 체계와도 유사하다¹⁰⁴⁾고 할 것이다.

이처럼 외장 가운데 최소 10종류의 경판들이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 및 그 산하의 판각공간에서 조성된 조직체계와 유사하게, 사원 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거나 교속 이원적인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 경판 가운데 13세기 중엽에 조성된 경판들은 都監板이나 準都監板의 성격을 가진다¹⁰⁵⁾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3) 허홍식, 앞의 책, 1986, 658~660쪽.

104) 최영호, 앞의 논문, 2006 ;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石堂論叢』 4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 앞의 책, 2009, 64~120쪽 ;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IV. 맺음말

이상에서 해인사에 소장된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외장에 포함된 경판들 가운데 고려시대에 판각된 경판들의 조성 주체·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들 경판에 담겨진 역사·문화적 성격 및 가치를 진단하였다. 그 개별 경판들 가운데 『宗鏡錄』·『祖堂集』·『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華嚴經探玄記』 4종은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都監板으로 분명하게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개별 경판도 도감판이나 準都監板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외장에 포함된 개별 경판 가운데 조성주체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경우, 외장의 개별 경판이 판각과정에서 대장도감·분사도감의 각수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경우,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운영체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다만, 본 맺음말 부분에서는 그 시기를 고종 23년(1236) 大藏都監과 分司都監이 설치되어 강화경판의 대장이 산출된 이듬해부터 대장의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같은 왕 38년까지로 한정하여, 외장의 조성성격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그 연유는 조성주체와 각수들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도감과 거의 관련된 일부 경판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좀 더 확대시킨 사례도 있다.

먼저, 조성 주체와 각수 인력이 진주목의 분사도감과 관련되고, 분사도감의 교속 이원적 조직체계를 함께 활용한 경우이다.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禪門拈頌集』 2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大方廣佛花(華)嚴經隨疏演義鈔』 『如來出現品』의 2종은 조성 주체가 대장도감의 판각공간이고, 대장도감의 각수 인력 등을 활용하였으며, 동일 화엄종 계열 사원간의 협조체계로 조성된 사례로 주목된다. 그리고 『釋華嚴旨歸章圓通鈔』·『釋華嚴經教分記圓通鈔』도 조성주체 및 각수 인력이 도감과 관련되며, 그 조성조직도 불교계 내부의 협조체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조성주체와 각수 인력 등이 동시에 도감과 관련된 사례로, 『金剛三昧經論』·『十句章圓通記』·『佛說預修十王生七經』(I)·『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 등 4종이 있다. 그리고 『華嚴經三寶章圓通記』은 조성주체

105) 이들 경판 가운데 도감이 설치된 고종 23년 이전에 조성된 『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이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등은 제외된다. 그러면서도 이들 경판의 조직 체계는 도감의 경판조성체계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가 관련되며, 그 경관의 필사자 등과 관련된 인력도 도감의 현장 인력을 활용하였다고 짐작된다. 한편 천기의 저술로 진단된 『法界圖記叢髓錄』도 천기의 제자들이 편찬하는 등 조성주체와 더불어 각수도 도감의 인력을 활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3종류의 분석 기준 가운데 2가지 지표가 도감과 관련된 사례이다. 『妙法蓮華經』은 조성주체와 조직체계가,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은 각수와 조직체계가 각각 도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네 번째로, 각수 등 전문 인력만 활용한 사례이다. 『大藏一覽集』·『慈悲道場懺法』,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大方廣佛華嚴經』, 그리고 『南陽先生詩集』·『唐賢詩範』·『金光明經』 등 9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종류의 분석 지표만 관련된 사례이다. 『金剛般若波羅蜜經』·『華嚴經普賢行願品(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2종으로 조성주체인 鄭晔이 도감과 관련된다.

한편,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은 조성 주체인 해인사와 각수가 도감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 판각시기가 대장도감이 설치된 당해 연도이면서 강화경관의 대장에 편입된 개별 경관이 산출되는 1년 전에 조성되었으므로 명확하게 도감관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金光明經』의 경우도 그 판각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각수 인력이 도감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본 경관을 판각하였는지 그 전후에 판각하였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판각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도 동경분사도감의 행정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조성된 고종 38년의 『佛說阿彌陀經』과 충숙왕 복위 3년(1334)의 『白花道場發願文略解』는 그 성격을 도감관 내지 준도감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12년 8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참고문헌

<사료>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金剛般若波羅蜜經(小字本)』·『金剛般若波羅蜜經』·『金剛三昧經論』·『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南陽先生詩集』·『唐賢詩範』·『大般若波羅蜜多經科文』·『大方廣佛花(華)嚴經隨疏演義鈔』·『如來出現品』·『大方廣佛華嚴經觀音智識品』·『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大方廣佛華嚴經』·『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歷代年表』·『妙法蓮華經』·『放光般若波羅蜜經』·『白花道場發願文略解』·『法界圖記叢隨錄』·『法華經普門品(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佛說阿彌陀經』·『佛說預修十王生七經』·『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三十八分功德疏經』·『釋華嚴教分記圓通鈔』·『禪門拈頌集』·『禪門拈頌集』·『十句章圓通記』·『人天寶鑑』·『祖堂集』·『宗鏡錄』·『華嚴經普賢行願品』·『華嚴經三寶章圓通記』·『華嚴經探玄記』(이상 해인사 소장본)

『고려사』

『東國李相國後集』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李基白 편, 일지사, 1987).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http://www.i80000.co.kr>)/사이버 장경관전/삼경서.

<국내>

박영수,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紀念, 동국문화사, 1959.

서수생, 「海印寺의 寺刊 藏經에 대하여」, 『국어국문학』46, 국어국문학회, 1969.

_____, 「八萬大藏經板 研究 : 특히 二重板과 補遺板에 대하여」, 『韓國學報』9, 일지사, 1977.

채상식, 「至元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2.

_____,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 14세기 華嚴思想의 斷面」, 『奎章閣』6, 서

- 을대 규장각, 1982.
- 허홍식, 『高麗高宗官版大藏經 補板의 範圍와 思想性』, 『美術史學論叢』,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1988.
- 김상현, 『『法界圖記叢髓錄』考』, 『韓國史學論叢』, 千寬宇先生還曆紀念, 1989.
- 천혜봉, 『高麗時代의 典籍』, 『美術史學研究』184, 한국미술사학회, 1989.
- 김윤곤, 『高麗大藏經의 造成機構의 刻手의 成分』,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상,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 1990.
- 채상식,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 김광식,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8, 건국대학교 사학회, 1993.
- 김상영, 『一然과 再造大藏經 補板』, 『중앙승가대학 논문집』2, 1993.
- 김윤곤,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체제에 관한 一考』, 『釜山女大史學』10·11 합,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1993.
- 허홍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 김광식,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邊界線 소재 인명의 판각사업 참여형태』, 『한국중세사연구』2, 한국중세사학회, 1995.
- _____, 『고려 무인집권기 승려지식인 山人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2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5.
- _____,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윤곤,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2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 최영호,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 2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7.
- _____,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4, 한국중세사학회, 1997.
- 한기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소재 均如의 著述과 思想』,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학회, 1997.
- 김윤곤,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內·外藏의 특징』, 『民族文化論叢』18·19합,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 김윤곤,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造處, 『人文科學』12, 경북대학교, 1998.
- 김호동, 『禪門拈頌』과 眞覺國師 慧誥, 『民族文化論叢』18·19합,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 배상현, 『高麗時代人の 元曉觀과 『金剛三昧論經』의 入藏』, 『白楊史學』15, 신라대학교, 1998.
- 김윤곤,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外藏에 入藏된 『法界圖記叢髓錄』과 『宗鏡錄』의 분석』, 『民族文化論叢』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 김호동, 『續高僧傳』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入藏된 韓國高僧의 行蹟, 『民族文化論叢』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 최영호, 『海印寺 所藏本 『大藏一覽集』 刻成時期의 재검토와 판각의 현실관』, 『한국중세사연구』6, 한국중세사학회, 1999.
- 한기문, 『祖堂集』과 新羅·高麗 高僧의 行蹟, 『한국중세사연구』6, 한국중세사학회, 1999.
- 남권희,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 研究』, 『新羅文化』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學會, 2001.
-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 최영호, 『13세기 중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과 海印寺』, 『한국중세사연구』13, 한국중세사학회, 2002.
- _____, 『13세기 중엽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조성공간과 경주 東泉社』, 『한국중세사연구』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 _____, 『13세기 중엽 경주지역 分司東京大藏都監의 설치와 운영형태』, 『新羅文化』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 채상식, 『고령의 반통사와 體元의 화엄사상』, 『退溪學과 韓國文化』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임기영,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정병삼, 『고려후기 鄭晏의 불서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24, 불교학연

구회, 2009.

최영호,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석당학술총서16, 세종출판사, 2009.

_____,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石堂論叢』 4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정병삼,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27, 불교학연구회, 2010.

정병삼, 『고려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30, 불교학연구회, 2011.

_____,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공간과 海印寺의 역할』, 『문물연구』2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_____, 『海印寺에 소장된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外藏’ 연구(Ⅰ) - 高麗經板의 조성시기 재검토』, 『石堂論叢』5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국외>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138·139·140,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Woijang(外藏) of
Ganghwa-Capital-Woodblock(江華京板) Koryo-Dynasty's
Tripitaka(高麗大藏經) in the Haein-Temple(海印寺)(Ⅱ)
— the review about a making specific character of the
Koryo-Dynasty's Woodblock

Choi, Young-ho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making specific character about the Koryo-Dynasty's Woodblock(高麗刻板) of Ganghwa-Capital-Woodblock-Koryo-Dynasty Tripitaka's Woijang which located in the Haein-Temple.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Koryo-Dynasty's Woodblocks of total 71 kinds. This paper is consisted in two parts: first, analysis of making-planner & second, making-system of the individual Woodblock.

Among these Woodblocks, there are 4 kinds woodblocks, which include the Zonggyeongrok(宗鏡錄), so it can be defined as the Dogam's product-woodblock(都監板). Because these one had been made at the Koryo-Dynasty's Daejangdogam(大藏都監) & Bunsae-Daejangdogam(分司大藏都監).

In addition to these, 26 kinds woodblocks can be included the tripitaka "Nammyungcheonwasangsongzengdogasasil(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so they can be classified as the Dogam's product-woodblock(都監板) or semi-Dogam's product-woodblock(準都監板). Because making-planners of the individual Woodblocks had been related to an operation of the Daejangdogam & Bunsae-Daejangdogam. also professional personnels & material resources of the Daejangdogam & Bunsae-Daejangdogam were used to the process making-Woodblocks. Moreover they had been utilized as the cooperation of a Buddhist-monk and a officialdom(教俗) that has operated to a making-system of the Daejangdogam & Bunsae-Daejangdogam.

Key Words : the Haein Temple(海印寺), the Woijang(外藏) of the Ganghwa-Capital-Woodblock(江華京板) Koryo-Dynasty's Tripitaka(高麗大藏經), making-planner of the individual Woodblock, making-system of the individual Woodblock, the Koryo-Dynasty's Woodblock(高麗刻板), the cooperation of a Buddhist-monk and a officialdom(教俗), the Dogam's product-woodblock(都監板), the semi-Dogam's product-woodblock(準都監板)